

[ TV ]

‘코믹한 서부 사나이’ 스파게티 웨스턴 영화

영화극장 '튜니티라...' (KBS1·28일 새벽 0시50분)



‘튜니티라 불라다오’는 미국의 정통 서부극과 달리 이탈리아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황야의 무법자(A Fistful of Dollars, 1964)’를 필두로 한 소위 스파게티 웨스턴 영화. 버드 스펜서와 테렌스 힐은 여전히 파트너로 나와 태연하게 코믹 연기를 보여준다. 성실급인 다혈질의 버드 스펜서가 소동을 일으킨다면, 푸른 눈의 여유있는 미소를 띤 테렌스 힐은 상대적으로 느긋하다.



‘내 이름은 튜니티(My name is Trinity)’의 속편으로 정통 서부극과는 달리 서부 사나이들의 세계를 코믹하게 그렸기 때문에 대중성에서 정통 서부극을 누르고 흥행에 성공했다. 결국 또 다시 빈털터리가 된 밤비노와 튜니티.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에게 아버지는 곧 죽을 것 같은 시황을 하며 유언을 남긴다. 밤비노에게 동생 튜니티를 잘 가르쳐 훌륭한 말 도둑으로 키우라는 것. 함께 길을 나선 이 형제는 마차를 떨려다 오려려 이들을 도와주게 되고 얼떨결에 연방 수사관 행세를 하게 된다.

TV 하이라이트

미래를 예언하는 소녀의 정체는?

신비한 TV 서프라이즈(MBC·오전 10시 50분)는 1997년 러시아, 볼고그라드 지역에서 태어난 소녀. 그는 3살이 되기도 전에 나라들과 다른 특이한 능력을 보였는데... 나라에서 큰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소년은 이유 없이 몸이 아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그 날 이후 지구의 미래에 대한 알 수 없는 예기들을 하기 시작했다. 이 소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다시한번, ‘정등흥등’, ‘정과애’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유부남과 사랑에 빠진 젊은 여성의 비극에 대한 영화이다. 결혼 생활 10년차인 정 교수(신영균)는 부인(고은아)의 병환에 헌신적인 애정으로 간병한다.

항공안전보안범위반 체포 지지



주말특별기획 ‘에어시티’(MBC·밤 9시40분) = 국정원요원 지성은 신기술 반출 범죄

범죄자들 쫓는 형사 액션물

와일드 카드(XTM·오후 3시) = 강력반 형사들의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다룬 영화 ‘와일드 카드’는 영화 ‘바람의 파이터’에서 열연한 양동근의 액션 연기가 일품인 영화이다. 최근 결혼을 발표한 한재영이 강력계 형사로 출연한 작품이기도 하다. 사건 발생 신고를 받은 강남경찰서 강력반 형사 오영달(정진영 분)과 방재수(양동근 분)는 즉시 사건 현장으로 달려간다.



유부남 사랑하는 한 여성의 비극

한국영화특선 ‘순정’(EBS·밤 11시) = 1968~69년에 만들어진 멜로영화 ‘미워도

국제보청기 본점 (동구청 남동성당사거리) (062) 227-9940 총점 (금남공원앞) (062) 225-9970

TV schedule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KBC/SBS, and EBS. Includes program titles and times.

케이블·위성TV 27일

Large table listing cable and satellite TV channels (YTN, MBN, KTV, SBS, etc.) and their respective programs.

\* 케이블 TV 가입신청 및 문의 080-398-3355(전국공통)